

오피니언

다산포럼

김민환



언더우드(Horace Grant Underwood),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인연이다. 그는 1859년 7월 영국 런던에서 태어나 13세 되던 해에 미국으로 건너갔다. 1881년 뉴욕대학을 졸업한 그는 기독교 선교에 몸을 바치기로 하고 미국의 네덜란드개혁교회 신학교(The Dutch Reformed Theologica Seminary)에서 신학을 공부했다. 그가 가고 싶은 곳은 인도였다. 1883년에 장로교 목사가 된 그는 다시 의학공부를 하면서 인도로 갈 날을 기다렸다. 그러나 1884년에 장로교 선교본부는 그를 '아침의 나라' 한국에 보내기로 결정했다. 그는 곧장 한국에 오고 싶었지만 사정은 여의치 않았다. 마침 갑신정변이 일어나 국내 상황이 매우 유동적이었기 때문이다. 하는 수 없이 일본에 머물며 그는 이 수경이라는 한국사람에게 한국어의 기초를 익혔다. 1885년 4월 5일 인천에 도착한 그는 곧바로 서울로 와 선교활동을 펴려 했지만 우리 정부가 기독교 선교에 여전히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우선 광혜원(廣

惠院)에서 물리와 화학을 가르쳤다. 정부가 기독교 선교를 더 이상 탄압하지 않자 그는 곧 본격적인 선교활동에 돌입했다. 1887년 조선인 교우들이 참여한 가운데 정동교회(현 새문안교회)를 세웠고, 1897년에는 주간신문인 '그리스도신문'도 창간했다. 국운이 기울어 가던 기독교청년회(YMCA)를 조직하는데 앞장 선 그는 우리나라가 식민지로 전락한 뒤인 1915년에 YMCA 안에 조선기독교대학(Chosun Christian College)을 개설했다. 이 학교가 1917년에는 사립 연희전문학교로 발전했고, 1957년에 세브란스의과대학과 통합하여 오늘의 연세대학교가 되었다. 개화기에 나온 신문이나 잡지를 읽다 보면 우리나라가 살 길은 기독교를 믿는 것

기독교, 연세대, 그리고 '고려대-학'

이다. 그는 이 교회에 놀러가지 않고 북한지역을 세 차례나 돌며 선교에 열을 쏟았다. 그는 1889년 기독교 서적을 간행하기 위해 기독교서회(基督敎書會)를 창설했다. 그는 성서번역위원회를 만들어 마가복음 등 성서를 한글로 번역해 출간했다. 번역을 위해서는 한글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한글 공부에 열을 올린 그는 내친김에 '한영사전' '영한사전'을 내는가 하면 우리말의 문법서인 '말본도' 저술했다. 그는 기독교 선교를 위해

이러는 주장을 자주 접하게 된다. 이른바 기독교 구국론이 개화와 사이에서 하나의 대세를 이루었다. 물론 기독교 구국론은 기독교 교리 자체에 대한 평가를 말바탕에 깔고 있지만 그보다는 기독교에 녹아 있는 근대성(Modernity)을 우리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개화할 수 없다는 절박한 인식이 주조를 이룬 것으로 볼 수 있다. 혹자는 당시의 기독교 선교사들을 서구 제국주의의 선배대쯤으로 폄하한다. 그런 면이 없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

것은 잠재적 위험이었다. 당시 개화파들은 그런 잠재성보다는 기독교가 안고 있는 근대성이라는 현재적 기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백번 돌아봐도 잘한 일이다. 한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기독교 선교사들이 한 역할은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기독교 선교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는 사실을 들어 선교사들이 세운 교육기관을 사시로 보는 것은 그야말로 우경이다. 기독교 정신이나 기독교가 품고 있던 근대성을 수용해 자본주의화에 성공한 우리의 주체적인 자력을 자랑으로 여기되 아울러 우리는 근대화과정에서 서구 기독교 선교사들이 편 혁신적인 봉사에 대해서도 고마워 해야 한다. 고려대가 고려대 학(高麗大學)이라는 걸 하나의 교과목으로 개설한 모양이다. 그런 걸 고려대가 하든 말든 그건 고려대의 자유다. 그러나 그 고려대 학이라는 것이 다른 대학의 정통성을 비하함으로써 고려대의 상대적 우월성을 내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그건 한 마디로 개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고려대 학을 개그에 비유한 것이 혹시 개그를 모욕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고려대 명예교수·다산연구소 대표>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시내버스 재생타이어 '파열사고' 걱정된다

시내버스 업체들이 원가 절감을 이유로 버스 뒷바퀴에 재생타이어를 사용하고 있어 대형사고가 우려된다. 재생타이어는 새 타이어보다 압력에 견디는 힘이 약해 여름철 기온 상승으로 내부 압력이 증가하면서 폭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광주시에 따르면 10개 시내버스 업체 896대의 버스 대부분이 뒷바퀴 4개에 재생타이어를 부착해 운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업체들이 재생타이어를 선호하는 것은 가격이 개당 15만원 선으로, 새 타이어보다 10여 만원 저렴하다는 데 있다. 또 재생타이어의 원단이라고 할 수 있는 페타이어를 제공해 추가로 5만~6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라고 한다. 그러나 지난달 서울과 청주, 대구, 울산 등지에서 잇따라 재생타이어 파열사고가 발생해 승객과 시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던 사실을 광주지역도 상

하는 추세여서 열에 약한 재생타이어의 파열 위험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점검이라는 게 고작 육안으로 타이어를 살펴보고 사용 여부를 판단하는 데 그치고 있다. 시내버스 승객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승객들이 "시내버스를 탈 때마다 어느 곳에 자리를 잡아야 하는 지 고민"이라며 "원가절감도 좋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불안해지는 것은 문제거 있다"고 말할 정도니 그 심경이 헤아려 진다. 우리는 재생타이어가 무조건 나쁘다고는 하지 않는다. 자원 재활용으로 생산비와 공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생산 기준과 검사 기준, 사용 기한을 충족할 때의 이야기다. 당국은 기존 미달 재생타이어가 생산·유통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시내버스 업체 역시 기준에 맞는 재생타이어만을 사용하고 점검과 정비를 제대로 해야 함은 물론이다. 다중이 이용하는 시내버스는 안전이 생명이다.

광주지역 공사 82%가 외지업체 몫이라니

광주지역 내 발주공사의 80% 이상이 외지업체가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8년 광주지역 건설공사 발주 물량 2조2141억 원 가운데 지역업체 수주 물량은 4000천억 원으로 18.1%에 불과했다. 나머지 81.9%는 외지업체가 쟁했다. 지역업체는 '들러리'로 전략할 셈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지역 내 발주공사에 대한 지역업체 수주율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00년 44.8%에 달하던 지역업체 수주율은 2004년 29.8%, 2007년 14.5%로 급감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지역 내 대부분의 대형 공사가 국비지원 사업으로 최자가 낙찰제를 실시하고 있어 자본력이 부족한 지역 건설업체는 입찰참여자조차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지난해 190개에 달하는 광주지역 종합건설업체의 수주 실적은 1조2500억 원으로 16개 시·도 가운데 제

주도를 제외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점유율도 0.8%로 1%를 밑돌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4개 업체 가운데 1개 업체 물로 물 올 상반기 동안 1건의 수주도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기반이 취약한 광주 지역의 실정상 건설 수주 감소는 지역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더욱이 지역 아파트 분양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그렇다. 건설업체가 살아나야 지역경제가 침체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정부나 지자체 등 당국은 지역 건설업체의 위기를 방관만 해서는 안 된다. 국비지원 대형 공사의 경우 계획 및 설계단계에서 지역 제한 또는 지역외 공공도급 대상으로 분할 발주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실업체를 감안하지 않은 획일적인 최자가 낙찰제는 지양해야 한다. 지역 건설업체도 지원만 바라지 말고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야 함은 물론이다.

NGO 칼럼

김혜옥



영산강의 시원지인 가마골 용소의 거센 물줄기를 시작으로 전라도 난타기행도 시작되었다. 비 온 뒤의 용소는 우렁차고 거침이 없다. 여행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모두 삼켜버리고 기대감으로 가슴을 두근거리게 했다. 홀더지역아동센터에서는 청각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난타를 가르쳤다. 배운 것을 배움으로 끝내지 않고 자랑도 하고 싶은 마음에 전라도 난타기행을 기획했다. 비단 자랑만이 아니라 우리가 나고 자라고 숨 쉬며 살고 있는 산하를 둘러보며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

새 박자에 맞추어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설마 했던 모양들이 가슴을 벅차게 만든다. 공연 시간은 단 10분. 우린 그 10분을 위해 7개월을 달려왔다. 시작은 너무나 어려웠다. 중간에 포기하는 아이들도 있었다. 힘들었던 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갔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들은 너무 행복했다. 우리 아이들은 '들리지 않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편견에 경멸하지 못했던 것들이 너무 많다. 성장기에 맞춰 겪어야 하는 것들을 겪어보지 못하고 그로 인해 찾아오는 건 "넌 장애인이기 때문에 안 돼!"라는 말뿐이다.

장애학생에 편견보다 희망을

고 싶었다. 답답의 아름다운 메타세쿼이아 길 위에서 첫 공연을 펼쳤다. 짧지만 관객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데 부족함이 없을 만큼 신명난 자리였다. 배운 것을 누군가에게 즐거움으로 선사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모두의 가슴은 뜨거웠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허리조차 펴지 못하고 일하고 들어오신 어르신들에게 작은 즐거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작은 음악회를 가졌다. 무대복으로 갈아입은 아이들이 자리를 잡고 서로의 시선을 바라보며 시작을 알리는 신호에 맞춰 북을 두드렸다. 북소리가 커지고 아이들의 행동도 커지면서 어느새 북소리는 온 마을을 뒤덮었다. '들리지도 않는다는데 어떻게 난타를 할까?'라는 걱정스러운 눈길로 바라보시던 어르신들은 안도와 감동으로 어느

그렇지 않다. 장애인이라서가 아니라 경험해 보지 않아서 잘 할 수 있는 것들도 못하게 된 것이다. 이들의 난타 공연을 본 사람들은 모두 감동을 받고 눈물까지 흘린다. 비장애인 공연을 했어도 그랬을까? 힘들고 어렵기는 했지만 아이들은 연습을 통해 이뤄냈다. 할 수 없는 것을 한 것이 아니다. 비장애인만 공연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음악을 귀로만 감상한다는 것도 모두 편견이다. 미세한 떨림과 진동으로도 충분히 음악을 느낄 수 있다. 아이들은 원래부터 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할 수 있었던 것을 할 수 없을 거라는 편견으로 할 수 없게 만들었을 뿐이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할 수 없을 거라는 편견보다 경험을 통해 희망을 심어줘야 한다. 소리없는 세상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 세상을 향해 소리치고 있다. <홀더지역아동센터 원장>

명절 연휴 집 비울때 전기 플러그 뽑아야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며칠 남지 않았다. 고향에 가려고 들뜬 마음에 자칫 소홀히 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전기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몇 가지를 알아본다. 먼저, 집을 비울 때에는 냉장고 등 전기를 끄기 곤란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전기기구의 플러그를 뽑고 전등 스위치도 꺼놓아야 한다. 또, 음식을 만들면서 쪼든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면 감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한 콘센트에 여러 개의 전기기구를 사용하면 큰 전류가 흘러 화재의 위험도 있으니 한 콘센트에 한 개씩만 꽂아 사용한다. 또한, 플러그는 완전히 꽂아 접촉 불량에 의한 열이 발생하지 않게 하고 뽑을 때에는 반드시 플러그의 몸체를 잡고 뽑아야 안

전한다. 명절 연휴가 끝나고 집에 와서도 전기기구를 확인해야 한다. 누전차단기가 정상 작동하는지 시험버튼을 눌러보고, 세탁기나 모터 같은 제품은 누전 시 방오 전류를 불러 모을 수 있도록 접지선을 꼭 해야 한다. 아울러 저소득층가구, 농어촌지역, 1~3급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사회복지시설 등은 전기사용중 고장, 정전 등의 돌발사고에 연극하면 24시간 무료로 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전기안전에 문의사항이 있으면 한국전기안전공사(1588-7500)로 상담하여 안전조치를 받으시면 된다. ▲박희중·전기안전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장

기고

강동익



최근 우리나라의 21번째 국립공원이 어디가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곳은 DMZ 일원, 광양 백운산, 강화 갯벌, 무등산 등인데 그중에서도 DMZ 일원과 무등산은 국립공원 지정 절차를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어 사회적인 논의가 활발하다. 우리 자연을 지키는 국립공원공단의 입장에서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하지만, 몇 가지 부정확한 정보와 불필요한 논란이 여론의 중심에 놓여있어 보다 실질적인 논의를 가로막고 있는 점은 아쉽기만 하다.

국립공원 지정에 대한 오해

그렇다면, 사실은 어떤가 살펴보자. 먼저, 국립공원이 되면 규제가 따라올까? 사실이다. 그럼 국립공원이 아닌 곳은 규제가 없을까? 아니다. 규제는 국가나 사회공동체를 형성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국립공원을 보호하기 위해 일반지역과 다른 형태의 규제가 있을 뿐이다. 흔히 하는 말로 국립공원에서는 집에 못 하나 내 맘대로 박지 못한다고들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못을 박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집도 고치고, 필요하면 새로 지을 수도 있다. 농사도 예전처럼 똑같이 지을 수 있고, 하던 장사도 추가 제재 없이 그대로 다 할 수 있다. 오히려 집을 지을 때 일반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건폐율이 20%로 제한되지만 국립공원 구역 내에서는 60%까지 건축할 수 있어 공원 내 주민의 거주생활은 더 보호받는다. 다만, 자연공원법에서 정한 절차를 통해 법이 정한 규모 등을 지도로 할 뿐이다. 두 번째 오해는 국립공원이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국민의 이용에 불편을

끼친다는 생각이다. 국립공원이 된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자연환경 정책에 대한 대내외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이를 통해 국민의 환경 보호에 대한 관심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 지역적으로는 국립공원 브랜드를 통한 지역 인지도 향상으로 내·외국인 방문이 늘고 국비 투자, 탐방객 증대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또한, 국민들 입장에서는 잘 보전된 자연환경을 즐기고, 자연 속에서 휴식과 고품격 탐방서비스를 동시에 받아가는 일석 삼조의 효과가 있다. 무등산처럼 이미 도립공원으로 지정

광고지 주부사원 모집광고 각별한 주의를

얼마 전 지역 광고지에 실린 주부사원모집 광고를 보고 찾아갔는데 광고 내용과는 달리 포장업무는 안 시키고 며칠 동안 건강식품에 대한 설명만 했다. 처음엔 이상했으나 월급 90만원과 퇴직금, 중식을 제공한다는 말에 부지런히 다녔다. 그러나 얼마 후 일정액을 투자해 물건을 구입하면 월 90만원에 제 수당까지 받을 수 있고, 국장까지 승진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건강식품을 구입한 다음에도 내 이름으로 주부사원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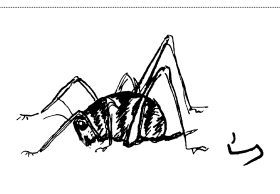
회 이상 지역광고지에 실어야 하며 그 광고를 보고 또 다른 주부가 찾아와야 수당이 지급되는 방식이었다. 이 말을 듣고 보니 다단계구나 하는 생각에 바로 나와 버렸다. 이런 주부사원모집이나 남녀사원모집 등의 광고를 보고 협박을 받았을 때 광고 내용과 달리 물건판매 등을 권유하거나 특정물건에 대한 홍보교육을 한다면 주부들 스스로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할 것 같다. ▲임정화·광주시 동구 총장로2가

無等鼓

'그 녀석과 처음 만난 반지하층 방 귀뚜라미로 착각했을 때 기분이 외방(미친 귀뚜라미)~' 요즘 인터넷에 떠도는 '끓음이 노래'의 일부분이다. 여기에도 끓음들이 관련된 에피소드 하나. 고교생 딸이 귀가 후 40대 후반의 아빠에게 말했다. "아빠! 오늘 우리 교실에서 끓음들이 나타났어". (친구를 비하하는 것으로 착각한) 아빠는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되지"라며 점잖게 타이른다. 딸은 "인터넷 좀 뒤져 보세요"라며 어이없어 한다. 그제야 아빠는 인터넷에서 끓음들의 정체를 발견하고 고개를 끄덕인다. 몸길이 4~5cm로 등 부분이 굽어있어 끓음들이 불리

었지만 인체나 농작물에는 해를 끼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 들어 끓음들의 출현이 잦아진 것에 대해 학자들은 이상기후와 연관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즉, 겉껍데기가 얇아 수분이 없으면 금세 말라죽는 바람에 습기가 높은 동굴 등에서 사는 것으로 알려진 끓음들이 사람들이 사는 바깥 세상에 비가 자주 내리 습해지자 활동무대를 넓혔다는 진단이다. 이와 함께 학자들은 올해 매미가 일찍 사라진 것도 기후 변화 탓으로 보고 있다. 평소 같으면 9월 초 중순까지 울어대던 매미가 8월 끝무렵부터 대부분 자취를 감춘 것도 잦은 비로 인한 환경 변화 때문이라는 의견이다. 올해 이상저온과 폭염, 폭우로 '지구 온난화의 저주'가 시작됐다는 조바심도 일고 있다. 끓음들의 출현은 이상기후 예방에 노력하지 않으면 더 큰 곤란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예사롭지 않은 경고다. /북경경 사회부장 unipark@kwangju.co.kr

끓음이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宅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錫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李康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111(가)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광고매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918>	사건부 2200-693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사회부 2200-616	조사부 2200-571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267>	전산팀 2200-685	기획사업국 2200-53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